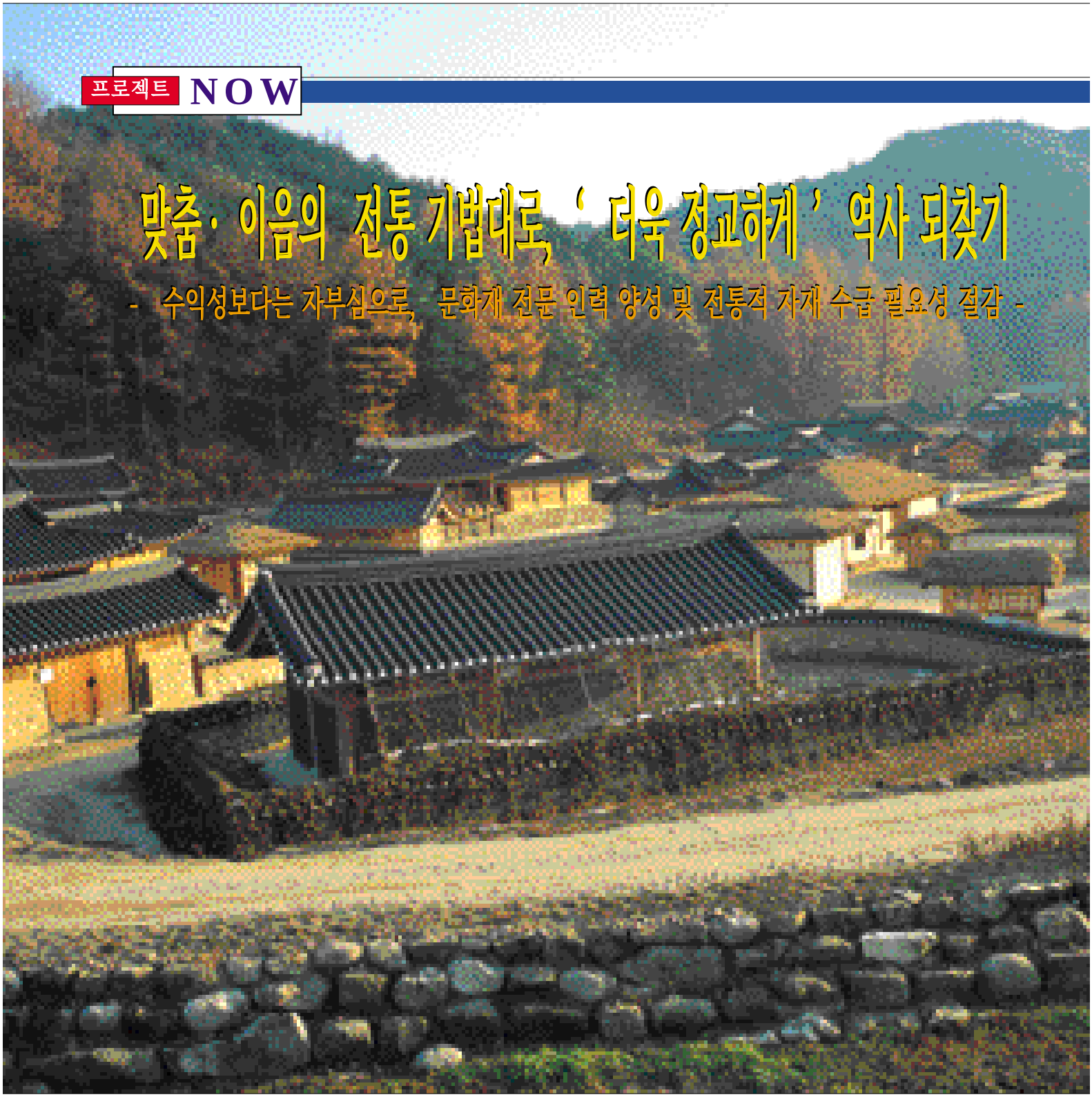
맞춤·이음의 전통 기법대로, '더욱 정교하게' 역사 되찾기

- 수익성보다는 자부심으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및 전통적 자재 수급 필요성 절감 -



국립공원 소백산을 둘러싸고 서천과 죽계천이 흐르고 있으며, 신라 불교의 화엄종 사찰인 부석사와 40여 개소의 대소 사찰이 산재해 있는 경북 영주 지역. 이 지역 순흥면 읍내리는 조선 시대 순흥도호부 소재지로 고구려 시대에서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 유산이 보존되어 있어 1991년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귀중한 문화 유산이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고 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영주시는 이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복원해 역사·문화·관광 루트 등 문화 산업화의 거점으로 육성 개발하기 위해 영주시 내죽리 및 정구리 일대에 소수서원 입구 정비, 소수박물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선비촌 조성 등 1차 사업(8만 4,993평, 389억여원)과 금성대군 유적 정비 지역 및 순흥향교 정비 지역, 등 2차 사업(16만 3,752평, 157억여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1997년에서 1999년까지는 영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 정부의 유교 문화권 관심 사업으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 착수된 이 사업이 2002년 말 완료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수

영주 선비촌 건설 공사 현장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소수서원과 충절의 표상인 금성단 등 귀중한 문화 유산과 미풍양속 및 전통 예절의 학습 공간이 조성된다.

맞춤, 이음 등 전통 기법대로 시공

이 가운데 특히 1차 사업으로 영주시를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룬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선비촌 조성 공사가 현재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건축 부문 중 전통 가옥 건립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저자거리 조성에 대한 방침이 수정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 등 토목 공사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45% 정도이며, 내년 연말에 완공될 계획이다. 선비촌 조성 사업은 지난 1996 년부터 시작된 순흥 역사문화유적권 개발 사업과 관광지 조성 사업을 연계해 순흥면 내죽리 소수서원 주변 1만 7,000 평에 사업비 100 여억원이 투입돼 이루어지고 있다. 동방 성리학의 비조(鼻祖)인 안향 선생을 기리고 민족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소수서원 인근에 단종 복위 실패로 인한 참화를 겪으면서 불타 없어진 선비촌을 인근의 종갓집을 비롯한 고택들을 실측해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선비촌에는 와가 6가구 22동, 초가 5동 13 동, 정려각 2동, 정사 1동, 누각 1동, 성황당 1동, 연자방아 1동, 물레 방아 1동 등을 짓게 된다. 또한 옥계천 건너에는 저자거리에 상가, 음식점, 특삼물 판매장, 관리 사무소 등 와가 12 동, 초가 2동과 주차장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곳은 당초 관람을 목적으로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영주시가 숙박이 가능한 체험장으로 조성하자는 의욕을 내는 바람에 창문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등의 변형이 불가피해진 부분만 빼고는 그대로 복원하고 있다. 실측해 살려내는 작업인 만큼 각 종갓집들의 ' 서 있는 그대로 '가 자료이다. 건축은 맞춤이나 이음 등 전통 기법대로 시공하고 있다.

마을 공간의 위계와 축을 중시

' 실측 후 복원 ' 공사인 만큼 이 현장은 마을 공간의 위계와 축을 상세하게 측정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라 보고 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마을의 상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려냈다. 특히, 마을 진입 통로는 단순한 진입을 위한 도로의 개념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자체의 성스러움과 신성함을 표현하는 경이로운 장소인 만큼 장승, 솟대, 당집, 당나무, 돌무덤 등을 비롯해 효자비, 열녀비, 정자, 모랭이, 고갯마루, 빨래터,정자, 서원, 개울물, 다리 등이 곳곳에 자연스럽게 살아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였다.

마을 구조는 진입하면 나타나는 세 갈래의 갈림길을 따라 마을이 3분되면서 마을 안길로 접어들어 각 주거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가장 높고 밝은 지역이나 중심에 종가가 자리잡고 종가 주변에 민가가 배치되도록 하였다. 입구에

는 영주시 형태를 띠는 연못을 조성하고 그 위에 정자를 세워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대표적인 복원 고택으로는 16 세기 중반에 건립된 화기리 인동장씨 종가와 해우당 고택 등을 들 수 있다. 인동장씨 종가는 튼ㅁ 자형의 상류 주택 와가로 안채와 사랑채가 ㅁ 자를 이루고 있으며 좌우측의 언덕배에 사당을 두고 있다.

조선 고종 16 년(1879) 에 의금부 도사를 지낸 해우당 김낙풍 선생이 건립한 해우당 고택은 경북 북부 지방의 전형적인 ㅁ 자형 구조 가옥으로 전면의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큰사랑과 아랫사랑을 두었다. 이 외에도 박수 선생(1611 1699 년)이 입향하여 건립한 만죽재 고택이 원형대로 신축되었다. 이 고택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에 5칸의 정침을 두고 양끝으로 익사를 달았으며 전면에 사랑을 두어 전체적으로 ㅁ 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류 주택과 달리 서민 주택은 초가에 홑처마 납도리 5량가나 겹처마 굴도리 5량가 등으로 지어졌다.

문화재 공사 전문 인력 양성 시급

현장을 이끌고 있는 이형수 동신건설 현장 소장은 120 억여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 문화재 공사로는 큰 규모 "라고 말한다. 지자체 발주 문화재 관련 공사들이 대부분 4,000 만 5,000 만원을 크게 웃돌지 못하는 규모인데다 예산 부족으로 그나마 실행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화재 공사는 보수 공사가 대부분이며, 실측을 통해 그대로 신축하여 복원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이 소장은 " 규모나 복원 형태 면에서 이런 공사는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공사이다 "라고 말한다. 복원 사업은 말 그대로 ' 과거 그대로를 살려내는 것 '을 최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공법 선택 등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고건축물로 이뤄진 마을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신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 더욱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도의 문화재 기술을 갖춘 인력 확보와 고건축물의 결을 살릴 수 있는 자재 수급이 관건이 된다.

다행히 각종 문화재 보수 · 복원 사업에 40 여 년을 종사해 온 ' 문화재 공사 전문가 ' 인 이형수 소장은 우수한 인력풀을 갖고 있는 덕분에 큰 애로를 겪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우리 고건축물의 자연미를 살리는 데 쓰였던 육송이 봉화, 울진 등 인근 지역에서 많이 생산돼 자재 수급도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미장을 비롯한 몇몇 분야는 60 세 이하의 기술자가 극히 드물 만큼 인력의 노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온 몸에 흙과 횟가루를 묻혀야 하는 힘든 일을 젊은 기술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선비촌 조성 공사 현장에는 하도급 업체가 없다. 석공, 목공, 와공 등 각 기능공들이 팀을 이루어 공사 진행도에 따라 작업을 해나간다. 그래서 이형수 소장을 비롯한 동신건설 직원들과 직접 시공하는 기능공들이 매일 얼굴을 맞대며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 만큼 팀워크는 최상이다.

규모나 수익성이 다른 공사보다 열악한 편인 문화재 공사에 임할 때는 자부심과 긍지가 필수적이다. 이형수 소장은 불국사, 안압지, 부여 외산 무량사 등 수많은 문화재 보수 공사 등에 40 여 년을 종사해 왔다. 더욱이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 아들인 이주선 부장도 지금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이 부장은 건축과는 상관없는 기계설계를 전공하였지만 대학 시절부터 아버지 일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문화재 공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현장에서 부자가 함께 문화재 복원 공사에 전념하는 모습이 말 그대로 장인(匠人)의 모습이다.

글 : **이형우 · 정숙진**
사진 : **최영익**